

[오피니언]

光日春秋

강준만



'한건주의'는 국어사전엔 없지만 널리 쓰이는 용어다. 이전 국어사전에 올라도 될 법 하다. 어떤 정의를 내리야 할까? 그간 사용된 용법에 근거하면, 한건주의는 "세상의 관심을 끌거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용도로 어떤 사안을 충분한 검토와 책임감 없이 성급하게 언론을 통해 떠뜨리고 보는 일시적이고 변태적인 실적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최근의 한 사례를 보자.

지난 3월 23일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행정기관들에 권고했다. 청렴위의 지침은 '청렴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선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강철 대통령 정부특보는 이 지침을 '한건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은 "청렴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다들 혼란스러워 한다"며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했다. 청렴위는 이런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원래의 지침을 진짜 '한건주의'로 만들어

버리는 자해를 저지르고 말았다. 무슨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건가? 청렴위의 지침은 공직자의 골프를 금지한 게 아니었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만을 금지했을 뿐이었다. 또한 일이었다. 청렴위의 지침은 "공직자에게 사실상 골프를 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곧 청와대의 뜻이기도 했다. 여기서 '사실상'이란 말이 중요하다. 어디 정색을 하고 물어보자. 공직자들끼리 골프를 치면 안되는가? 공직 사회의 '간막이 파벌주의'가 심각하다면, 평소 갈등을 빚어온 부서의 공직자들끼리 골프를 치면서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정을 알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답이 돌아왔다. 자기 돈 내고 골프치는 공직자가 얼

마나 될 것 같느냐는 질책성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공직자들끼리 각자 자기 돈 내고 골프 치라는 건 사실상 골프 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백백 없다는 게 한결같은 답이었다. 다시 물어보았다. 이강철씨나 문재인씨는 노무현 정권의 청렴을 상징하고 '양극화 해소 캠페인'을 주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들이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절대 골프'를 장려한다는 말인가요? 어느 골프 애호가께서는 골프가 정부와 기업계의 상호 소통에 기여하는 점도 있으니, '절대골프'라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 소통의 문제는 골프보다는 반(半)공식적인 간담회를 절대화하고 비용을 각자 분담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업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노 정권에게 어울리는 일 아닐까? 한 언론인은 "참여정부 들어 공직사회가 내놓고 골프를 즐기는 분위기"라며 "특히 인-허가와 공사 발주, 감독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에서는 골프채를 안 잡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한건주의

시설

外煥銀 부실, 인위적이었다면 중대문제가

외환은행 할당매각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가능성에 이어 의도적으로 수백억원대 부실자산이 중북 계산됐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어제 "중북계산된 부실자산을 제외할 경우 매각 당시 외환은 BIS 비율이 8%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IS 비율이 8%이상이라면 매각할 필요도 없었고 더구나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인수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 된다. 감사원 발표가 사실상 드러날 경우 말 씀한 외환은행을 뒷거래를 통해 부실공유기관으로 전락시켜 외국계 펀드에 팔아넘긴 셈이다. 공적 자산인 은행을 부실 덩어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투기성 외국자본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데 일조했다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반면 한덕수 부총리는 어제 국회 답변을 통해 "외환은 매각은 외자를 도입

남북자·국군포로 송환 진지한 접근 필요하다

지난 1978년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김영남씨 문제가 새롭게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남씨 문제는 바로 역대 정권이 다루기를 꺼려왔던 남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남씨 문제가 대두된 것은 부끄럽게도 일본정부의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자국민 찾기노력 덕분이다. 일본은 납치된 후 북한에서 사망한 자국여성 요코다 메구미씨의 유골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DNA검사를 통해 유골이 가짜임을 밝혀내는 한편, 직접 북한에서 메구미씨가 낳은 딸을 만나 유전자를 채취했다.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메구미씨의 남편 김철준이란 남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내 납북자 가족들을 일일이 만나 유전자를 채취, 대조함으로써 그가 김영남씨임을 밝혀냈다. 우리정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하던 김영남씨의 팔손 노모와 가족들은 아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송계축



지난주에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 등을 통해 묘를 돌아보며 조상의 은락을 기린다는 한식(寒食)이 있었다. 절기상 청명, 한식 때가 되면 삼천리 산하는 바야흐로 완연한 봄 정취를 마음껏 발산한다. 옛날만 개나라는 병아리 같은 손길로, 선홍빛 진달래는 정영의 손길로 산하 가득한 봄을 마음껏 느끼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이맘때쯤이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이 더 값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애국의 결정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가득한 봄의 기운들처럼 삼천만 민족의 염원 가득한 마음 마음들이 모여 1919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上海)에서 수립·선포되었다. 지난 1919년 3월 1일 삼천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일본제국주의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무자비하게 그 염원을 짓밟았다. 그러나 우리 선열들은 그들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국내에서 3·1운동 이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민주적 정부형성의 의지와 해외각지에서 성숙된 민주공화적 자립의욕의 결과에 의해 복합된 삼천만 민족의 옥구비출로 가능해졌다. 3권 분립의 국가적 틀을 제대로 갖춘 임시정부는 1945년 11월 우리 민족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김구(金九) 선생이 귀국할 때까지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통해 통합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자주독립을 최대의 목표

로 내걸었다. 이때 임시정부가 내걸고 투쟁했던 독립운동은 단순한 소집단체 항쟁차원이 아닌, 이념을 동반한 광복정책 측면에서 국가적·정부적 기능으로서의 면모와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민족 스스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역량을 세계에 알린 것이기도 하다. 비록 일본제국주의를 능가하는 군사력을 갖지 못해 미국, 소련 등의 도움을 받아 광복이 이루어졌지만 임시정부의 국가적·정부적 역량이 없었다면 도움을 준 나라들에 의해 당연히 신탁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것은 형태만

바뀐 또 다른 식민지 지배체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시정부 등을 통해 국가적·정부적 역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기에 이념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우리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상해시대(1919~1932), 이동시대(1932~1940), 충청시대(1940~1945)로 일컬어지며 27년 동안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써온 임시정부는 이봉창에 의한 도쿄 일왕폭살의거, 윤봉길에 의한 홍구공원 투탄의거 등을 이끌었으며 광복군을 창설해 일본제국주의에 선전포고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일본의 패망을 맞이하여 귀국하게 된 다.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운 4월이 그 아름다움을 탐껏 뽐내고 있다. 이 아름다운 산하, 이 조국을 위해 갈날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폭기에 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목숨을 바쳐 지켜내고 활동하신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가득 새기는 4월이 된다면 그 아름다움이 몇 십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광주지방보훈청장>

자격증 위·변조 대책 마련해야

자격증을 위조·판매하는 행위가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일당이 위조한 자격증만 토의·토록 성적표를 비롯, 대학 졸업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11 종류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 모든 공무원과 사문서가 위조 대상인 것을 보면 진짜 천국이냐 다름없지 않은가.

방치하면 신용 정보사회는 무너지고 만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자격증 위·변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해당 자격증 관련 기관도 진위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심이동·광주시 북구 중흥동>

기고

김철수



12일부터 18일까지는 제 42회 도서관 주간이다.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국민들의 독서욕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독서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역사는 멀리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이 설립되고 율령이 반포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서민층의 교육기관으로 경당이 있었는데 이곳은 공부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여러 서적을 보관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한 일종의 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이 영상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책 읽어야 산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영상매체가 딱딱한 활자매체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영상매체는 순간적으로 스쳐가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수동적인 인간에서도도 한국인의 한 달 독서량이 겨우 0.8권으로 세계 166위를 기록할 정도의 낮은 수치이다. 한국인의 독서시간은 흡연자의 하루 흡연시간인 20분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낮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나 책을 읽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독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금언이다. 국민들의 교양과 지식수준이 국력의 바로미터이며 독서하지 않고는 21세기 정보의 시대에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책 읽지 않는 국민에게 미래가 없고 책 읽지 않는 민족에게 발전이나 성장이 없다는 말은 이 시대 우리에게 던져진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동문학가·사(한글문협이사)>

수학여행이 탈선 온상이라니

수학여행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는 일부 콜택시 기사들이 야간에 수학여행단들로부터 돈을 받고 술과 담배를 몰래 제공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나 교육적인 효과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견문과 지식의 함양은 물론 그 속에서 인간 사회 환경친화적인 정서와 인격, 질서와 도덕,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수학여행을 가면 청소년들이 해방

감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자유인이 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무교육과 방관·무관심에 통째로 이뤄지지 않아 학습도, 여행도 관광과도 거리가 먼 비교육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술·담배를 비롯, 도박·학생들간 폭력 행위도 일어난다. 비교육적인 수학여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수학여행이 여행행사에 그치고 학생들의 탈선만 부추긴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한창식·광주시 광산구 신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은 1960년 9월26일 밤 시카고에서 열렸다. 토론자는 민주당의 케네디와 공화당의 닉슨 후보였다. 당시 미국 유권자들은 닉슨의 승리를 낙관했다. 닉슨은 8년간 부통령 재임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베테랑 정치인이었다. 반면 케네디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었다.

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반면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아이젠하워, 존슨 등은 훌륭한 지도자로 재평가되고 있다. 요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정책과 이념, 사상보다는 후보의 대중적인 효과, 좋은 포장만으로 표를 구하려는 이미지 정치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를 앞세운 후보가 당선 이후 그 이미지와 전혀 다른 정책을 펼

이미지 정치



그러나 TV 토론에서 유권자를 사로잡은 것은 케네디였다. 닉슨은 토론 2주 전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초취한 모습으로 열연할만 드러냈다. 이에 비해 케네디는 TV 화면에 뚜렷하게 부각되는 짙은 색 양복을 입고 짧은이 넘쳐나는 꾸밈없 건강한 얼굴로 시청자를 응시했다. TV 토론 이후 지지율은 반전됐고 케네디는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가 낮은 평가를 받는 이미지만으로 과대평가된 거품이 빠

쳤을 때 나타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 주민의 몫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미지가 관을 칠 때는 유권자에게는 이미지를 관통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다. 정당과 후보자의 이미지와 그들의 실제 정치 이념과 정책 노선을 분간해야 한다. 인도의 정치가 네투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이미지만으로는 절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한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도 이미지와 실물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재현 사회2부장 jhjung@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취재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편 매 부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론조사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서 02-773-9331
시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8)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